

『1995년 서울, 삼풍 : 사회적 기억을 위한  
삼풍백화점 참사 기록』

메모리서울프로젝트 기억수집가 저, 동아시아, 2016

정태영\*

1995년 서울, 삼풍! 이 책의 제목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시간과 장소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 날의 기억은 흩어졌고, 위령탑은 다른 장소에 세워졌다.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사이,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가 터졌다. 더 최근에도 안타까운 사고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 삼풍을 기억 저편에서 떠올리게 하는 것이 또 다른 참사라니... 결국 어제로부터 배우지 못한 우리의 내일은 참사의 반복일 수밖에 없다. 어쩔 그리도 닳은꼴인지, 그래서 더 안타깝다. 뼈저린 아픔을 겪은 후에야 깨닫는 어리석은 인간이기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록해야 한다.

이 책은 그 아픈 날에 대한 기록이다. 메모리[인]서울프로젝트는 서울문화재단의 기획 하에 “빠르게 진행되는 서울의 발전 속에서 무심히 흘려보냈던 기억으로서의 역사를 재발견”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을 기억하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동대문운동장 일대(추억), 2002년 한일 월드컵(환희) 그리고 삼풍백화점 사고(아픔)를 꼽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았다.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기억수집가들이 기억제공자들을 찾아가 인터뷰하는 방식의 구술기록 사업이 시작되었다. 당시 기록은 없고, 오롯이 개인의 아픔으로만 남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힘겨운 설득의 과정을 거쳐 21년 만의 삼풍백화점 참사 기록집이 탄생했다. 그 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가, 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을까 등 수많은 물음과 함께 그 날의 기록을 펼쳐보았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5년 6월 29일 참사 당일의 기억으로 구성된 1장, 생존자가 기억하는 그 날과 그 날 이후의 삶을 담은 2장, 망자에 대한 기억과 남겨진 유가족의 삶을 담은 3장, 삼풍에 관한 아픔을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의 역사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담은 4장, 그리고 이 기록집 발간에 참여한 다섯 기록수집가의 소감을 담은 에필로그가 마지막이다.

1장은 〈우리는 삼풍백화점에 있었다: 참사 24시〉이다. 어느 하루보다 길고 긴 24시간의 기록이다. 삼풍백화점의 붕괴 전, 붕괴의 순간, 붕괴 후의 시간 순으로 구성되었다. 백화점직원부터 경찰, 약사, 간호사, 기자, 소방관, 민간 구조대원, 자원봉사자까지 그곳에 있었던 이유는 각자 달랐지만 그 날의 기억을 고스란히 구술로 토해냈다. 그 기억을 통해 생생하게 그 날의 지옥이 그려졌다.

삼풍백화점은 “한순간에 내려앉는데 3초도 안 걸렸을 거예요”란 말처럼 폭삭 무너져버렸다. 테러라는 허위보도가 나돌았을 정도로 상황통제가 안됐다. “그 때는 건물 구조보다 테러를 더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신축건물이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건물잔해 속에는 “일부의 일부만” 남은 훼손된 시신이 나뒹굴고, 무더위, 화재, 소방수에 섞여가는 시신냄새까지 악몽같은 기억들이었다. 그 혼란 속에서 도둑질이 난무했다. 봉사자를 사칭한 자의 구조가방엔 “사망자가 끼고 있는 반지를 빼가려고” 잘린 손가락째로 주워담겨 있었다. ‘삼풍백화점 악마의 미소’가 떠오르

며 소름이 돋았다. 반면, 서로가 서로를 모르지만 자발적으로 나선 수많은 봉사자들과, 드링크계를 챙겨 온 봉사약국, 마지막까지 구하려했으나 “아저씨, 제가 더 못 살 거 같아요”를 끝으로 결국 구하지 못한 생명에 대한 소방관의 회고가 이어졌다.

사후약방문이지만 원인규명이 필요했다. 원인규명감정단, 붕괴사고 조사·보상 책임자들로 인해 원인은 여실히 드러났다. 기둥만 있고 중간보가 없는 형태의 무량판구조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거침없이 주저앉아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실시공에 설상가상으로 무리한 구조변경과 식당증축, 무거운 냉각탑 이동과정의 균열 등 수많은 원인들이 있었다. 필연의 결과였다. 이유도 모르고 그 날 그곳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으나, 삼풍백화점 회장과 뇌물을 받은 서초구청장에게 법이 물을 수 있는 책임의 무게는 겨우 7년 6개월이었다. 살인죄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상죄’였다.

이어진 ‘기억의 재구성’은 시간별로 어떤 조짐들과 대처를 했는지를 담담하게 정리했다. 안타까운 시간시간이 흘러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리고 “17:52경부터 붕괴가 시작되고 이때 5층의 비상벨이 울렸다”로 끝난다. 그 옆에는 무너져내리고 뺨 뚫려 윤곽만이 남은 삼풍백화점 사진이 있다. 마지막 문장과 사진을 번갈아보며 조용한 탄식이 나왔다.

2장은 <살아서 돌아오다 : 생존자의 기억>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 목소리는 오로지 생존자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다. 상들리에 틀이 있어 살아난 김고미 씨, 당시 겨우 8살이었기에 엄마와 누나를 지킬 수 없이 무력했고, 그 기억은 학창시절 내내 그를 괴로웠다는 박민기 씨, 사고 이후 흔들거리는 지하철조차 불안해서 어디로 도망갈지를 항상 대비하며 긴장한다는 박은희씨, 배우자와 자식들에게도 부끄러워 삼풍백화점 참사의 생존자라고 말하지 못했다는 주성근씨의 기억이 담겨 있다.

흔히 시간이 흐르면 기억은 희미해진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기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하게 남는다. 그들이 그랬다. 그 기억을 말로 되뇌이고 세상에 꺼낸다는 것이 주저될 수도 있었지만,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별다른 거는 없고, 저는 그거면 충분할 거 같아요”, “이런 대형 사고는 국가 차원에서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 같다”는 바람들로 용기를 내었다고 한다. 생존자의 구술은 그만큼 참여가 힘들어서인지 짧은 페이지에 담겨 있었지만, 이 책의 의미를 가장 잘 담고 있는 부분이였다.

3장은 <남겨진 사람들은: 유가족의 기억>이다. 생존자도 괴로운 기억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가족은 더욱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시간이 흐름에도 상처는 아물지 못했고, 또다른 참사 유가족을 보며 아픔으로 아픔을 덮고 있었다. 4일간 여동생 시신만 찾고 다녔다는 조종규씨를 비롯하여 시신조차 찾을 수 없는 200여 명의 유가족 이야기가 이어졌다. 손가락, 발가락 하나라도 가족의 흔적을 찾기 위해 난지도를 뒤졌고, 시신이나마 찾을 수 있는 분들에게는 축하한다는 인사를 건내며 껴안고 울었다는 사연들에 눈물이 났다.

“어느 날 갑자기 내 가족 하나가 없어서 생겨버린 이 짐을 어떻게 져야 할지… 그때 풀어야 했던 응어리를 풀지 못하니 지금까지도… 묶여져 있겠죠. 풀리지 않은 채 5년, 10년이 흘러온 실타래는 더 꼬입니다… 실타래가 풀리든가, 엉키든가, 아니면 끊어지든지 하죠. 실타래가 끊어지는 경우는 제가 폭발하는 상황이에요”

가족이 돌아오지 못했기에 유가족의 기억은 아직도 ‘진행중’이었다. 헨리 나우웬은 용서란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방법을 바꿔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냥 잊어버리는 것은 치유도 용서도 아니다. 유가족들에 대한 심리치료와 함께 참사 이후의 ‘그러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것에 공감했다.

4장은 <사회적 기억으로 가는 길>이다. 이 장은 삼풍백화점의 상징인 에스컬레이터 이야기와 ‘망각의 골짜기에서 기억을 말하라!’가 담겨 있다. 당시 삼풍백화점은 철저히 돈의 논리로 세워졌고 무너졌다. 당시 강남은 고학력의 젊은 소비자, 사무직 근로자들, 가정주부가 모인 노다지였다. 상품 판매전략으로 에스컬레이터는 백화점의 중앙자리를 차지했다. 중앙 기둥은 설계에서 삭제되었다. 안전은 그렇게 무시되었다. 무심히 이용했던 에스컬레이터가 이런 의미였다니 참 무서웠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불편한 진실은 금방 잊고만다. 과거로 치부해버린다. 그러나 삼풍백화점은 결코 과거가 아니다. 대한민국 서울, 오늘 이곳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였다. 21년 전에 비해 과연 진보하고 안전해졌는가? 아니다. 잊어서는 안된다. 망각에 저항해 필사적으로 기억해야 한다.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힘들다. 충격적이고 잔인한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기억수집가들의 에필로그를 읽으며 그런 생각이 들었다. 건축이 의사, 변호사처럼 사회정의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건축가의 말처럼, 생명을 구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직무유기라는 소방관의 말처럼 우리 개개인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의 행동을 하면 바뀔 수 있다. 기록하고 기억하면 바뀔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두의 진정한 치유와 고인의 명복을 빈다.